교양으로서의 한시와 한시 짓기의 괴로움

1. 한시 짓기의 괴로움

- 고대의 시는 대부분 노래의 형태로 존재. '詩歌'라고 부름.
- 우리말에 남아있는 노래의 흔적. 장단음, 반복되는 음운의 배치 등
- 노래로서의 한시는 성률(聲律)의 기본이 됨. 중국어의 四聲은 시에서의 음악성을 극대화시키는 좋은 조건.
- 한시에서의 평측, 압운 등은 음악성과 관련됨. 대구(對句) 역시 운율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임.
- 일반적으로 문학 분야에서 성조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양(梁)나라의 심약(沈約, 441~513)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함. 그가 성률(聲律)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한시의 발달 과정에서 근체시로의 이행을 분명히 보임. 이것을 통해 평성과 측성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킴.

月白寒松夜	측측평평측	달 밝은 한송정의 밤
波安鏡浦秋	평평측측평	물결 잔잔한 경포호의 가을.
哀鳴來又去	평평평측측	슬피 울며 오고 가는 건
有信一沙鷗	측측측평평	신의 있는 한 마리 갈매기.

(작자미상, 「한송정곡寒松亭曲」, 『고려사高麗史』)

오언절구란 1행이 다섯 글자로 되어, 모두 4행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말한다. 그 중에서 첫글자가 평성으로 시작하면 '평기식(平起式)'이라 하고, 위의 작품처럼 측성으로 시작하면 '측기식(仄起式)'이라고 한다. 「한송정곡」은 측기식으로 된 오언절구인 셈이다. 여기에 오언절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압운법, 즉 두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의 마지막 글자는 같은 운목(韻目)에 속한 글자를 써서 배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첫 번째 구절에도 압운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작품은 하평성(下平聲)에 속한 글자인 '우(尤)'자에 속한 '추(秋), 구(鷗)'를 압운자로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한시의 갈래들이 정해진 평측과 압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장전운(奎章全韻)』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서 조선 후기 정조(正祖)의 명으로 편찬된 운서(韻書).

2. 『규장전운』의 구성

- 평성삼십운(平聲三十韻). '동(東), 동(冬), 강(江), 지(支), 미(微), 어(魚), 우(虞)……' 등 서른 글자의 운자. → '운목(韻目)'

-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은 각각의 운목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의 발음에 기초한 문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한반도의 지식인들에게 글자의 발음과 운(韻)의 종류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에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숙제였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을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전을 흔히 '운서(韻書)'라고 한다. 중국에서 편찬된 운서는 고려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나름의 운서를 편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흔히 고려 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운통고(三韻通考)』를 시작으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편찬된『동국정운』,『홍무정훈역해(洪武正韻譯解)』,『사성통해(四聲通解)』 등을 비롯하여 여러 종의 운서가 전해졌다. 이들 운서는 시대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문 창작에 중요한 길잡이 노릇을 했다.

-『규장전운』은 정조의 명에 의하여 편찬. 정식 제목은『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 첫머리에 수록된「의례(義例)」를 시작으로「부목(部目)」에 이어 본문이 끝까지 이어진다.「부목」의 끝부분에는 이 책에 수록된 글자수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규장전운』에 수록된 한자의 수는 원운(原韻) 10,946자, 증운(增韻) 2,102자, 협운(叶韻) 279자 등 모두 13,345자나 된다. 이들 글자에는 각각 해당 글자의 뜻[訓]이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동그라미 안에 한글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다. 각 성조에 수록된 한자들은 현재 우리가 사전 편찬에서 사용하는 '가나다' 순의 자모순을 따른다. 이런 방식으로 글자의 음만 알면 쉽게 해당 글자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 1792년(정조16)에 편찬이 완료되어 1796년(정조20)에 인쇄되어 간행된 것이다. 이 책을 완성한 뒤 정조는 제주도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유생들이 지은 시문을 심사하여 입상자들에게 상품으로 하사하는 등 이 책의 보급에 힘썼다. 그리하여 조선 시대에 편찬된 마지막 운서인『규장전운』은 다양한 판형으로 인쇄되어 널리 보급된다.

3. 시 선집을 편찬하는 뜻

- 서거정의『동문선(東文選)』, 김종직(金宗直)의『청구풍아(靑丘風雅)』, 성현(成俔)의『풍소궤범(風騷軌範)』, 이이(李珥)의『정언묘선(精言妙選)』, 허균의『국조시산(國朝詩刪)』, 남용익(南龍翼)의『기아(箕雅)』, 중인층들의『풍요(風謠)』 시리즈 등

-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고 주장하는 김종직과 가지가 무성하면 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현의 주장이 각각의 시 선집 편찬에 반영됨.

-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 선집을 편찬.

4. 이이의『정언묘선』

- 율곡의 나이 38세 때인 1573년 여름에 편찬. 그는 청주목사를 잠시 지내다가 1572년 3월부터 병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쉬던 중임.

- <연보>에는『정언묘선』편찬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그의 학맥을 이은 박세채(朴世采)가 작성한 율곡의 연보에 의하면『정언묘선』은 1573년에 완성되는데, 그 기록에는 "그 해 여름『정언묘선』이 완성되었다"(夏, 精言妙選成.)고 되어 있으며, 세주(細註)에 "선생께서 후세의 시도(詩道)가 더욱 어긋난 것을 걱정하시어 이에 고금(古今)의 여러 시체(詩體)를 취하여 그 충담(沖淡)하고 이아(爾雅)한 것을 모아 원(元)·형(亨)·리(利)·정(貞)·인(仁)·의(義)·예(禮)·지(智) 8권을 만드셨다"고 함. 이 기록에 이어서 7월에는 홍문관(弘文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직제학(直提學)에 제수되었지만 병으로 취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정언묘선』의 편찬은 그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김남형 교수에 의하면 현재 전하고 있는 『정언묘선』은 모두 5종. 규장각에 일사문고본, 연세대 도서관본(목판본과 필사본 2종이 소장되어 있음), 대구의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낙와본(樂窩本), 김남형 교수 소장본인 동춘당본(同春堂本) 등.

- 이 중에서 일사문고본, 연세대 도서관 소장 목판본, 낙와본은 모두 목판본으로, 김남형 교수는 동일 판본으로 판단됨. 이들은 총 8권 중에서 원자집(元字集), 리자집(利字集), 인자집(仁字集) 3권만이 전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함.

- 동춘당본, 연세대 도서관본과 같은 필사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름. 중요한 판본은 역시 동춘당본으로 보임. 이 필사본 서문 첫 장에 '同春翁'이라는 주인(朱印)이 찍혀있고, 표지 안쪽 면에 초서와 해서로 메모를 해 두었는데 그 필적으로 미루어 보아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보임.

- 연세대 도서관본(필사본)은 총 8권 중에서 원, 형, 리, 정, 인자집 등 5권을 필사한 판본. 율곡의 서문을 필사한 페이지에 '나주정씨세장(羅州丁氏世藏)'이라고 표시하였고, 뒷 페이지에는 정순태(丁舜泰)라는 분이 1896년 10월에 필사했다는 내용의 필사기가 적혀있음. 이 책은 여타 판본과는 체제, 수록 작품, 필사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각 권마다 選詩 기준을 제시함. 충담소산(沖澹蕭散), 한미청적(閑美淸適), 청신쇄락(淸新灑落), 용의정심(用意精深), 정심의원(情深意遠), 격사청건(格詞淸健), 정공묘려(精工妙麗), 명도운어(明道韻語).

- 그는 『정언묘선』에서 위응물(韋應物), 이백(李白), 두보(杜甫) 등의 작품을 많이 선택했지만, 주희(朱熹)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뽑았음. 가장 중요한 비평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충담소산에 의해 편찬된 제1권(원자집)에는 도연명(陶淵明)의 작품이 18편으로 많이 선택되어 있는 데 비해 조선의 사대부들이 중시했던 두보의 작품은 3편만 선택되어 있음.

- 이를 통해서 시의 원류를 밝히고 올바른 시를 읽도록 독자를 배려한 것임.

4. 위항문학의 새로운 힘

-중인들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문화 욕구의 변화에 따른 문학사의 발전. 사대부로서의 정신 지향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함께 보임. 사대부문학과 시민문학의 중간지점에 위치.

- 위항문학의 발전 계보

① 崔奇男(1586~1665) : 宮奴 출신. 시 짓는 재주가 알려져 사신을 따라 일본에 다녀오기도 함. 위항인들을 모아 가르침. 최기남을 비롯한 여섯 사람의 한시를 모은 『六歌雜詠』은 최초의 위항시집임.

② 洪世泰의 『海東遺珠』 간행(1712, 숙38) : 수록 인물 48명. 후원자는 김창협. 洛社 조직하여 중인들의 문학동인 집단의 시초가 됨. 그는 해동유주의 서문을 쓰면서, 사람은 천지의 中을 얻어 태어났으며 情에서 느낀 바를 시로 나타내는 데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는 주장을 펴서 중인문학의 의의를 적극 인정함.

③ 昭代風謠의 간행(1737, 영13) : 고시언, 채팽윤이 중심이 되고 사대부 시인 오광운이 서문을 씀. 수록 시인 162명을 증가.

동시대 인물로 정래교(홍세태의 제자, 청구영언 서문을 씀. 詩, 琴, 歌에 두루 능함), 이언진(박지원의 우상전의 모델, 역관으로 일본에 가서 詩名을 떨침, 죽을 때 자신의 원고를 모두 불태우면서 자신을 알아줄 이 없음을 한탄했다고 함.) 등이 있음.

④ 風謠續選의 간행(1797, 정21) : 천수경이 중심. 당시 대제학이었던 홍량호의 서문을 받음. 수록 시인 333명. 시인이며 중인층의 대표적인 교육자. 인3왕산에 송석원을 열고 시문을 즐기면서 차좌일, 장혼 등과 함께 송석원시사를 조직. 장혼과 그 제자들은 七松亭詩社를, 같은 세대의 박윤묵은 후배들과 함께 西園詩社를 조직함.

동시대의 인물로 조수삼(1762~1849)(청나라를 여섯 차례 다녀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힘, 함경도 지방을 여행하고 지은 <北行百絶>에서는 변방민들의 고난을 시로 읊었으며, <秋齋紀異>에서는 거지, 기생, 노비, 상인, 도둑, 이야기꾼 등 자기가 보고 들은 도시 하층민들의 일화를 모았다. 일지매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며, 전기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온다)

⑤ 風謠三選의 간행(1857, 철8) : 『이향견문록』을 편찬한 유재건이 중심임. 당시 정승인 정원용과 조두순의 서문. 295명 수록. 그는 조희룡, 최경흠 등과 함께 稷下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함.

동시대의 張之琬은 斐然詩社를 조직하였으며, 성령론을 적극 주장.

⑥ 대동시선의 편찬(1917) : 장지연이 편찬. 원래는 풍요사선을 편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남선 등이 이미 신분이 철폐된 마당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하여 무산됨. 그 직후 장지연이 시 부문에서는 대동시선을, 인물사 부문에서는 일사유사를 편찬하여 마지막을 장식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